여배우들

상상극장

톱스타들 연기 한 자리에서 본다

'여배우들' 윤여정 이미숙 고현정 최지우 김민희 김옥빈 호흡

'상상극장' 조니 뎁·주드 로·콜린 파렐·히스 레저 '4인 1역'

'포화속으로' 차승원 김승우 권상우 빅뱅 탑까지 출연

정상급 스타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영화가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여배우들의 삶'이라는 독특한 소재를 다룬 영화 '여배우들'에는 정상급 여배우들이 총출동한다.

'스캔들-조선남여상열지사', '정사' 등을 만든 이재용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여배우들'에는 6명의 톱스타들이 출연한다.

크리스마스 이브, 패션잡지 '보그' 화보 촬영을 위해 여섯 명의 여배우가 한 자리에 모이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여배우들'은 실제와 가상을 넘나드는 독특한 스타일의 영화다.

출연배우의 면면은 화려하다. 연륜이 묻어나는 윤여정을 비롯해, 색깔 있는 연기를 보여주고 있는 이미숙, 드라마 '선덕여왕'과 홍상수 영화를 통해 오랜 공백을 깨며 성공적으로 복귀한 고현정이 얼굴을 보인다.

또 '한류스타' 최지우, 패션 모델에서 연기자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김민희, '박쥐'의 김옥빈이 함께 호흡을 맞췄다.

이들은 영화를 통해 여배우로의 삶과 자신의 콤플렉스 등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오는 10일 개봉 예정이다.

26일 개봉하는 '파르나서스 박사의 상상극장'(이하 상상극장)은 한 자리에서 만나기 어려운 할리우드 스타들을 모두 볼 수 있는 영화다.

'상상극장'은 '브로크백 마운틴', '다크 나이트' 등에서 깊은 인상을 남긴 배우로 지난 2007년 갑작스레 사망한 히스레저의 유작.

'상상극장'은 악마로부터 딸을 구하기 위해 5명의 영혼을 사로잡아야 하는 내기에 응한 파르나서스 박사가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정체불명의 사기꾼 토니를 만나 현실과 상상을 넘나드는 거대한 모험을 펼치는 판타지 어드벤처다.

'상상극장' 촬영 중 히스 레저가 사망하면서 할리우드 스타들이 자발적으로 영화 제작에 참여했다.

조니 뎁, 주드 로, 콜린 파렐 등 정상급 스타들이 히스 레저와 함께 4명의 각기 다른 토니를 연기한다. 영화 사상 처음으로 '4인 1역'이 펼쳐지는 셈이다.

이들은 출연료를 히스 레저의 딸인 마틸다에게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감독은 '비주얼의 마술사'로 불리는 '12 몽키스'의 테리 길리엄이다.

다음달 촬영을 시작하는 '포화속으로'에는 한국의 스타급 남자배우들이 총출동한다.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북한의 남침에 대항하던 71명 학도병들의 실화를 그린 전쟁 영화 '포화속으로'는 당초 '71'이라는 제목으로 유승호, 김범, 빅뱅 멤버 승리를 캐스팅해 진행되던 프로젝트였다.

최근 태원엔터테인먼트로 제작사가 변경되면서 캐스팅도 완전히 바뀌었다. 차승원이 북한군 장교 역, 김승우가 71명의 학도병을 지휘하는 육군 중위 역으로 캐스팅 됐으며 학도병으로는 한류 스타 권상우와 최근 드라마 '아이리스'에서 냉혹한 킬러역을 맡고 있는 빅뱅의 탑이 출연한다.

' 머리 속의 지우개'를 연출한 이재한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그밖에 12월 말 개봉 예정인 최동훈 감독의 '전우치' 역시 강동원·백윤식·김윤식·임수정·염정아·유해진 등 초호화 캐스팅을 자랑하는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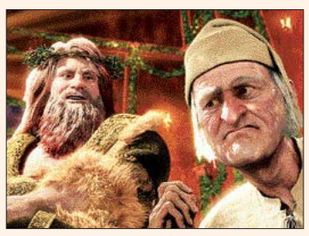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새 영화 크리스마스 캐롤

온 몸 센서 달고 연기 짐 캐리의 표정 볼만

영국의 유명 소설가 찰스 디킨스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3D 애니메이션으로 퍼포먼스 캡쳐 기술을 활용했다.

크리스마스 이브, 런던 최고의 구두쇠 스크루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하라는 사람들도 싫고, 저녁을 함께 하자는 조카 프레드도 못마땅하다.



그날 밤 온몸에 쇠사슬을 감은 동업자 말리의 유령이 나타나 세 명의 유령이 찾아올 거라고 말한다. 스크루지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유령을 차례로 만나며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게 되는데….

영화의 압권은 배우 짐 캐리다. 온 몸에 센서를 달고 표정 연기를 해낸 짐 캐리는 퍼포먼스 캡처를 통해 스크루지의 어린시절부터 노역까지 모두 소화했으며 과거, 현재, 미래의 유령 목소리도 직접 연기했다.

'폴라 익스프레스', '베오울프' 등을 만들었더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으며 스크루지의 연인 벨과 스크루지의 여동생 팬을 연기한 로빈 라이트 펜, 밥 호스킨스, 콜린 퍼스 등이 함께 호흡을 맞춰 뛰어난 연기를 보여준다.

〈전체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